

# 일본 국외 공무 출장 결과 보고

- 일본 총무성 · 미야자키현청 · NHK · 지역방송사 방문 면담 -

---

◆ 기 간 : 2024. 11. 26. (화) ~ 11. 29. (금), 3박 4일

◆ 방문지 : 일본 (도쿄, 미야자키시)

---

2024. 11.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출장 내용 .....	3
1. NHK 본사 방문·면담 .....	3
2. 일본 총무성 방문·면담 .....	15
3. 미야자키 현청 방문·면담 .....	20
4. TV미야자키 방송사(UMK) 방문·면담 .....	24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29

## I 출장 개요

---

### □ 출장 목적

- 일본 NHK, 지역 방송사업자,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여 방송시설 안전, 재난방송 운영 실태 및 수신료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무 국외 출장

### □ 출장 내역

- (기간) '24. 11. 26.(화) ~ 11. 29.(금) [3박 4일]
- (출장국가) 일본 도쿄, 미야자키시
- (출장자) 이현 방송정책국장, 박성철 재난방송관리팀장, 방송기획정책과 강창수 주무관, 재난방송관리팀 손희정 주무관, 행정데이터팀 서혜원 주무관

### □ 주요 활동

- (도쿄) NHK 본사, 일본 총무성 방문·면담
- (미야자키시) 미야자키 현청, TV미야자키(UMK) 방문·면담

**< 출장 세부 일정 >**

일 자	주요 일정
11.26.(화)	<b>【이동】</b> 김포 → 일본 도쿄
	NHK 본사 방문 면담
11.27(수)	일본 총무성 방문 면담
	<b>【이동】</b> 일본 도쿄 → 일본 미야자키시
11.28.(목)	미야자키 현청 방문 면담
	TV미야자키(UMK) 방문 면담
11.29.(금)	<b>【이동】</b> 일본 미야자키시 → 인천

## □ 개 요

- 일시 : '24. 11. 26.(화) 14:00 ~ 16:00
- 장소 : NHK 본사 회의실, NHK World Japan 스튜디오 등
- 참석자
  - (방통위) 이현 방송정책국장, 박성철 재난방송관리팀장, 강창수·손희정·서혜원 주무관
  - (NHK) 후지시타 와타루 미디어총괄국장, 야무우치 에이지 시청관계부 기획총무과장, 야나기다테 유 시청관계부 기획총무과, 운노 유키코 국제관계부장, 요시다 유키 국제기획부

## □ NHK World Japan 스튜디오 등 방문

- (NHK 국제방송 현황) NHK('95년 시작)는 TV와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뉴스와 정보프로그램 등을 영어로 제작해서 전송
  - '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총무성과 NHK는 수신지역 확대 및 콘텐츠제작 등 국제방송을 확대 추진
- (NHK World Japan) 일본 공영 미디어 단체인 NHK의 국제 서비스로 TV, 라디오 및 온라인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제공(Broadcasts, Website, Apps, Social media 활용)
  - (TV)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24시간 영어로 방송, 약 160개국 및 지역의 약 4억 2천만 가구에 위성, 케이블 및 기타 서비스로 방송

- (라디오) 최신 뉴스부터 일본 기술, 문화,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정보와 일본어 수업을 포함하여 17개 언어로 라디오에서 일본의 최신 정보를 제공. 또한 재난 및 기타 긴급상황 시 최신 정보도 제공하여 다른 나라에 재난 피해 위험을 줄이고 전 세계 청취자의 안전과 보안에 기여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제공
- (재난방송 영어자막 자동생성) 일본 기상청에서 재난정보를 방송사로 보내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가 영어로 번역되며, 아나운서는 시나리오 전용 화면을 보고 즉각 재난방송 가능

<NHK World Japan 방송 현황 >



o 방문 사진



<NHK World Japan 스튜디오 방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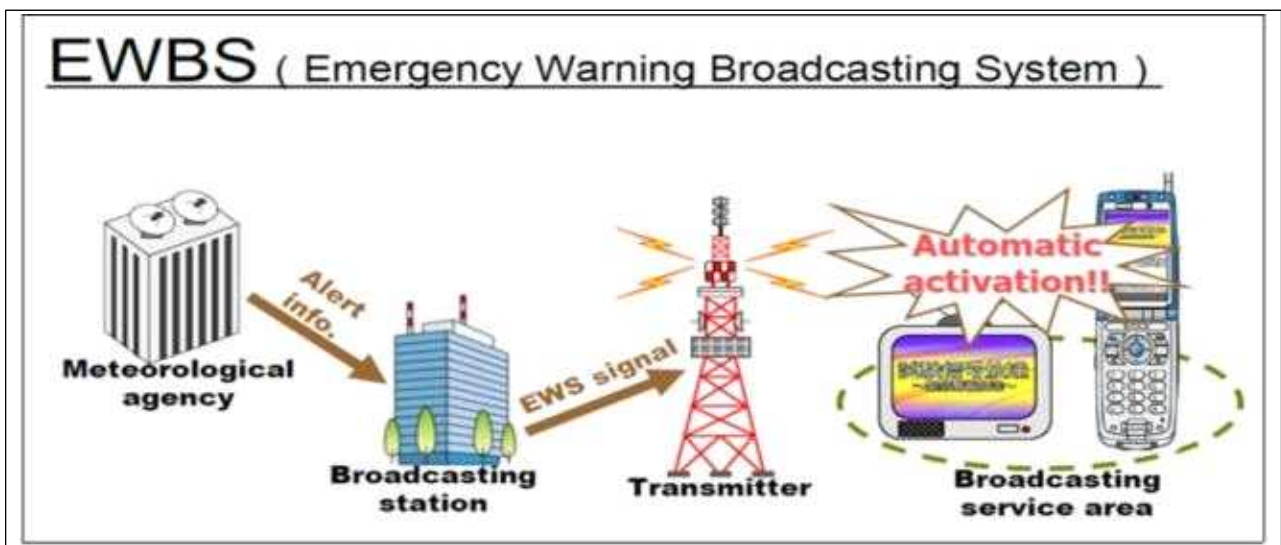
<재난방송 영어자막 시나리오 >

## □ NHK 본사 면담내용

### 1) NHK 발표

- (NHK 재난방송 현황) 수년간의 경험과 첨단장비 발달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95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더욱 체계화 됨
  - ※ NHK는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었으며, 방송법 제9조에 'NHK는 재해, 위기관리 등의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긴급재난의 경우, TV와 라디오가 꺼져 있어도 정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며 재난방송이 방송됨
- (EWBS 긴급경보방송시스템) NHK는 지진, 태풍, 호우 등의 재난 속보 발생 시 일본 기상청과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EWBS(Emergency Warning Broadcasting System)을 통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화면 및 자막을 TV 및 라디오 채널에서 즉각 속보로 재난방송을 실시
  - ※ EWBS는 NHK기술연구소에서 표준화 설계하여 구축하였으며, 전국에 모든 타방송사에서도 표출 디자인만 다를뿐 동일한 방식의 EWBS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NHK의 긴급경보방송시스템 흐름도 >



- (NHK 재난방송 체계) 재난 발생 시 긴급 속보를 '따르릉' 알람과 함께 화면에 문자(기상청 정보로 화면 자동생성)가 표시된 후 20초 후 뉴스로 전환, NHK는 신속 보도를 위해 일본 전국에 로봇 카메라

950개 설치하고 14대 헬리콥터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부 하천 감시카메라 활용

<재난발생 시 속보 알림화면 >



- NHK는 현재 지상파TV(2개 채널), 위성TV(3개 채널), 라디오(3개 채널)을 갖고 있으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NHK 모든 매체에서 9시간 이상 재난 보도를 하고 방송 외에 디지털매체(Website, App)도 활용

<NHK 재난방송 방송채널>





- 재난보도 시 수화통역 활용, 어린이·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화면에 정보 표기 및 영어 라디오 방송 송출, 색각이상자를 위한 색깔 구분 표기 및 Website 방송에서 수화CG 자동생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 NHK는 재난 보도 시 아나운서 톤(명령조)을 높여 상황 심각성과 행동 지침을 긴급하게 알림
- 매년 9월 1일 방재의 날에 NHK 자체적으로 대규모 훈련을 하며 지역 자체적으로 평소에 비상 대비 체제를 갖추고 훈련함. 또한 동경 NHK 방송국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오사카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백업체제도 갖추고 있음.

<NHK 비상대비 체계>



- o (NHK 수신료) 수신계약에는 지상계약과 위성계약이 있음. 지상계약은 지상파 2채널(종합TV, 교육TV), 위성계약은 지상파 2채널과 위성 3채널(BS1, BS프리미엄, BS4K → 2024년 말까지 BS와BSP4K로 통합 예정) 시청 가능
- 수신료 납부액은 2023년 10월에 인하되었으며, 납부방법을 통일했음.

현재는 납부 시기, 할인, 면제 여부, 특수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 특별계약은 자연 지형으로 지상파 방송이 난시청 지역인 경우, 열차나 전철 기타 영업용 이동체에서 위성방송만을 수신하는 경우의 계약

< 수신료 납부액 >

계약 종별	월액	6개월 선불액	12개월 선불액
지상계약	1,100엔	6,309엔	12,276엔
위성계약(지상계약 포함)	1,950엔	11,186엔	21,765엔
특별계약*	860엔	4,934엔	9,599엔

\* 자연 지형으로 인한 난시청지역 혹은 열차·선박 등의 이동체에서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경우  
출처: NHK(2024). <2024年度收支予算と事業計畫の説明資料>, p.8.

- 오키나와는 특별지역으로 설정해 인하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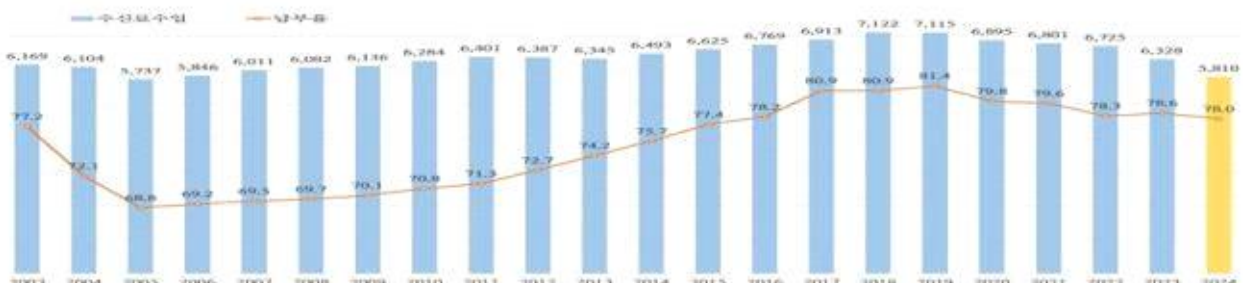
< 오키나와 수신료 납부액 >

계약 종별	월액	6개월 선불액	12개월 선불액
지상계약	965엔	5,539엔	10,778엔
위성계약(지상계약 포함)	1,815엔	10,416엔	20,267엔

출처: NHK(2024). <2024年度收支予算と事業計畫の説明資料>, p.8.

- o (NHK 수신료수입) 2023년 수신료수입은 6,328억 엔으로 전년대비 396억 엔 (5.9%) 감소했으며, 2024년 예산안에서는 5,810억 엔으로 전년대비 320억 엔 (7.2%)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NHK 수신료 수입 추이 >



출처: 總務省・公共放送WG事務局(2022). 公共放送の現状について(2022年9月21日), p.15; HK(2024). 2024年度收支予算と事業計畫の説明資料,p.7;2023年度 (令和5年度) 決算概要, p.10.

- 수신료 수입은 2018년(7,122억 엔)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3년 10월에 수신료를 10% 인하하면서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5,725억 엔까지 감속할 것으로 예상

< NHK 2024~2026년 수지계획 >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증감		증감
사업수입	6,021	-418	6,034	13	6,045	11
수신료	5,810	-429	5,800	-10	5,725	-75
사업지출	6,591	-128	6,434	-157	6,295	-139
사업수지차액	-570	-290	-400	170	-250	150
환원자원 보전	570	-	400	-	250	-

출처: NHK(2024). NHK經營計畫(2024-2026年度)の修正(案), p.4.

- 수신계약 대상 건수는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5,013만 건이며, 이중 계약 총수는 4,107만 건, 납부 건수는 3,941만 건, 미납건수는 166만 건이었으며, 납부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78.6%임
- 수신설비 설치자의 20%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NHK는 공평한 수신료 납부를 내세워 징수를 강화하고 있음
- NHK는 납부율을 2019년에 81.4%까지 끌어올렸지만, 이후 감소로 돌아서 2023년 3월에는 78.3%까지 감소했음

< 수신료 납부율 추이(단위: 1,000건) >

구분	2020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3월	2023년 3월	2024년 3월
계약대상수	50,989	51,117	51,094	51,099	50,130
계약총수	42,223	41,693	41,550	41,443	41,074
납부건수	41,403	40,587	40,387	40,032	39,414
납부율	81.2%	79.4%	79.0%	78.3%	78.6%

출처: NHK(2024). 2023年度業務報告書, p.93.

- NHK는 수신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미납자 납부독촉 소송, 할증금 납부 약식재판, 온라인 수신료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NHK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 미납자에 대한 독촉(간이재판 포함), 민사 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음(2022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미납자 상대 납부독촉 약식재판이 11,535건, 소송이 4,817건, 강제 집행이 1,621건이며, 미계약자 상대 소송이 가구 559건, 사업소 40건이었음)
- 할증금 제도 도입(2023년 4월): 부정한 수단으로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신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의 2배에 해당하는 할증금 징수가 가능하며(방송법제64조제3항), NHK는 약식재판을 제기하고 있음
- 온라인 수입료 도입: NHK는 2025년에 온라인 수신료를 도입할 예정인데 TV 없이 온라인 동시전송만 이용할 경우 수신료를 지상 계약과 같은 1,100엔으로 한다는 내용의 2024~26년 경영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11월에 NHK경영위원회에서 의결
- o (NHK 수신료 징수 관련 영업 경비) NHK는 수신 계약과 수신료 징수를 위한 영업 경비가 과도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수신 계약과 징수를 위한 영업 경비는 2018년에 773억 엔으로, 수신료 수입의 10.8%(영업경비율)를 차지했음
  - 이후 경비 절감을 추진해 2022년에는 영업경비를 546억 엔으로, 영업 경비율도 8.1%로 줄였으며, 2024년 예산안에서 영업 경비는 544억 엔으로 낮췄지만 수신료 수입의 감소로 영업경비율은 9.3%로 예상하고 있음
  - NHK는 수신계약을 위한 호별방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납가구와 미계약가구는 호별방문을 계속하고 있음(NHK는

호별방문 영업제도를 2024년 3월에 폐지했다고 발표)

- 2024년 4월부터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업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영업경비와 영업경비율 추이 >



출처: NHK(2024). 2024年度收支予算と事業計画の説明資料, p.25.

#### 受信料制度の意義

受信料制度は放送事業の持続可能性を確保し、放送の質と多様性を支える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 1950年代、受信料制度を創設し放送の普及を促進していったNHKの歴史を振り返ります。

■ 受信料は放送収入の重要な柱となっており、放送の質と多様性を支えるために不可欠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 放送収入の約50%は受信料から得られており、これは放送事業の持続可能性を確保するために不可欠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 受信料体系(2) 受信契約の種別

受信契約は、放送受信の範囲や期間によって異なります。

■ 地上波契約: 地上波放送を受信するための契約。

■ 衛星放送契約: 衛星放送を受信するための契約。

■ 有線放送契約: 有線放送を受信するための契約。

#### 受信料体系(3) 受信料の支払方法・コース

受信料の支払方法は、契約の種類や放送の種類によって異なります。

■ 地上波契約: 月額1,000円(税込)。

■ 衛星放送契約: 月額1,500円(税込)。

■ 有線放送契約: 月額1,200円(税込)。

#### 受信料体系(4) 受信料額

契約種別	月額	1ヶ月分	6ヶ月分	12ヶ月分
地上波契約	1,000円	10,000円	60,000円	120,000円
衛星放送契約	1,500円	15,000円	90,000円	180,000円
有線放送契約	1,200円	12,000円	72,000円	144,000円

#### 受信料体系(5) 受信料の割引制度

受信料の割引制度は、放送受信の状況や契約の種類によって異なります。

■ 高齢者割引: 65歳以上の高齢者に対する割引。

■ 障害者割引: 障害者に対する割引。

■ 学生割引: 学生に対する割引。

#### 受信料体系(6) 受信料の先着制度

受信料の先着制度は、放送受信の状況や契約の種類によって異なります。

■ 先着順: 放送受信の状況によって先着順で受信料を支払う。

■ 後着順: 放送受信の状況によって後着順で受信料を支払う。

< NHK 受信料関連 発表자료 >

## 2) 주요 질답내용

### < NHK 재난방송 관련 >

- NHK 재난방송 비용이 3,000억 원 수준인데, 수신료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지 별도의 정부 지원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NHK 집행하는 예산의 97%는 수신료로 운영되며 로봇 카메라 및 헬리콥터는 NHK 자체 예산임. 기본적으로 NHK는 대부분 수신료로 집행함
- 방송 장비나 송출시설(중계소) 등 노후화로 인해 안정적인 방송 송출에 장애나 방송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수신료로 하는지 별도의 지원이 있는지?
  - NHK는 방송시설 관련된 비용을 수신료로 사용하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하고 별도의 시설투자는 없음
- 한국의 방송 송신시설은 고지대 혹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NHK의 경우 무인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산속 송신시설은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음. NHK 지국(54개) 기술자들이 송신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를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음
- 오사카에 백업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백업센터에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 인력 등 준비되어 있는지?
  - 동경에 재난이 발생하여 방송 송출이 어려운 경우, 오사카에서 방송 위성을 통해 전국 방송지국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오사카 방송이 어려우면 주변 방송국에서도 송출 가능

## <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

-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수신료, 정부지원, 자체수익 등으로 운영중임. NHK는 운영 재원을 100%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황은 어떤지?
  - NHK는 소프트웨어 자산 활용, 시설 활용 등을 통한 기타 수입 3%와 수신료 수입 97%로 구성되며, '24년 예산은 6,591억 엔으로 국내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관련 대부분 지출함
  - 수신료 수입 확보를 위한 영업 경비는 544억 엔으로 예산 대비 8.3%를 차지함
- 방통위는 수신료 감액제도\*와 가산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일본의 NHK는 수신료 감액 및 가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 6개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를 감액하도록 규정하나, 실제 혜택을 보는 시청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
  - \*\* 납부기한 내에 미납 시 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시청자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 일본의 수신료는 공평분담의 원칙과 위성 방송 보급을 위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여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인 제도를 제공하며,
  - (면제)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 방송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복지 시설과 학교 등을 면제 대상으로 함
  - (할증) '23. 4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수신료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수신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할증을 부과함

○ 일본의 수신료 수입은 18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23년 10월부터 10%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신료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NHK는 수신료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인터넷 디지털 광고, NHK 홈페이지 홍보, 외부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계약 및 지급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 수신료 납부율도 매년 감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 시 처리 절차 및 체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NHK는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할증제도를 도입하여, 미납자에게는 문서, 편지,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

○ NHK 인터넷 사업을 '필수업무'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24년 5월 일본 국회를 통과, 일본의 수신료 재원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휴대폰으로 TV 인터넷을 이용해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NHK 프로그램을 볼 의사를 표시한 사람만 부과됨
- TV와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아 휴대폰만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면담 사진



<NHK·방동위 면담>



## □ 개 요

○ 일시 : '24. 11. 27.(수) 10:00 ~ 12:00

○ 장소 : 총무성 10층 1004호 회의실

## ○ 참석자

- (방통위) 이현 방송정책국장, 박성철 재난방송관리팀장,  
강창수·손희정·서혜원 주무관

- (총무성) 토요시마 모토노부 정보유통행정국장, 혼다 토모유키 정보  
유통행정국 총무과총괄보좌, 네기시 마사유키·스미다 코헤이  
정보유통행정국 방송정책과과장보좌, 오카모토 카오리·나카  
무라 타카토·치바 아즈키 정보유통행정국 방송정책과계장  
외 1인 추가 예정

## □ 주요 질답 내용

## &lt; 일본 재난방송 대응 관련 &gt;

## ○ 일본의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가 있는지?

- 방송법 제108조에 따라 지상파TV·라디오 등을 실시하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재난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재난방송에 대해 방송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방송사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본 정부도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방송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지?

- 일본의 방송법에는 재난 발생·우려 시 지상파 TV·라디오에서 재난

피해경감을 위한 보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방송에 대한 의무는 있으나 방송 자립의 원칙(자주성과 자율성을 기본)이 있으므로 재난방송에 대한 편집은 방송사의 자율이며 법적제재는 없음

○ 법적제재가 없을 시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독려하는지?

- 방송사의 자주자립의 대원칙이 있으므로, 방송사의 내용이나 편집에 대한 것은 방송사의 자율에 맡김. 다만, 재해경보나 피난 정보 제공 설비(예비용 송신기)에 대한 민간방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총무성은 민간방송사,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실시하는 재난방송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 총무성에서는 피해정보, 대피정보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국의 긴급 지진속보 설비나 예비 송신소 설비 등의 정비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함

○ 한국은 도로·철도 터널 등 지하공간에서 재난방송 수신되도록 수신설비 예산 지원 중인데, 일본도 지하공간에서 재난방송이 잘 수신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 총무성은 재난방송이 잘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기 설치나 설비를 지원 중임

- 과거에는 지하공간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현재 TV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조합 공동으로 수신하는 장비를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

○ 한국의 도로·터널의 난시청 해소책임은 도로·터널 관리자인 지자체의 책임이라 정부가 중계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일본의 경우 도로·터널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방송사의 책임인지?

- 일본의 난시청의 해소책임자를 한 명으로 한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수신국을 확대하기 위한 중계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방송을 듣기 위해 설비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함. 터널 지원은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터널 내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중계기 지원은 하고 있음
-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재난방송 접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을 촉진하기 위해 자막방송, 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에 대한 2019년도까지의 목표를 설정한 ‘방송분야의 정보 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수립(2018년 2월 책정, 2023년 10월 개정)
  - 또한, 방송사업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막 프로그램 등의 제작비나 재난 시의 긴급 생방송 프로그램 등에 자막을 부여하는 설비와 정비비용 조성도 실시
-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지요? 재난 라디오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재난 시 인근지역의 재난정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정보 등 세세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는 매우 중요한 미디어로, 재난 시 주민에게 확실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라디오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중계국 정비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비 송신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방송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중임

### <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

- 일본의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일본은 NHK에서 총 수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에 맞도록

설계하는 총괄 원가방식으로 수신료를 산정하여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총무성 검토 및 인가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하고 있음

※ NHK가 제출한 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제출받은 총무대신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한 뒤 내각에 보고하고 내각은 2월에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양원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한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 정부지원, 자체수익 등으로 운영 중임. 다양한 수입에 따른 지출이 명확하지 않아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함. 일본은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성 강화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광고나 기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수신료 수입이 대부분이며, 총 수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에 맞도록 설계하는 총괄 원가방식으로 수신료를 산정하여 운영됨

○ 일본의 수신료 수입은 18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23년 10월부터 10% 인하되어 23년 수신료 수입액은 6,328억엔임, 수신료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수신료 감소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NHK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적자를 메우고, 중기 계획으로 '24 ~ '2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NHK 경영위원회의 경영위원 구성은 전국 8대 광역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1명씩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전국 각 지방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완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 NHK 경영위원은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에서 임명하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함. 지역 대표 8명은 지역에서 선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 방송법에 따르면 경영위원 선출 시 교육, 문화, 과학, 산업 각 분야와 각 지방을 공평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구체적인 지역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12명을 선정 시 지방시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유연하게 변화됨

○ 면담 사진



< 일본 총무성 · 방동위 면담 >

## □ 개 요

○ 일시 : '24. 11. 28.(목) 10:00 ~ 12:00

○ 장소 : 회의실

## ○ 참석자

- (방통위) 이현 방송정책국장, 박성철 재난방송관리팀장,  
강창수·손희정·서혜원 주무관

- (현 청) 나카오 케이이치로 위기관리국장, 사카모토 위기관리과 총무담당,  
나카무라 위기관리과 대규모 재해담당, 하타나카 위기관리과  
위기관리담당

## □ 미야자키현청 위기관리국 방문 면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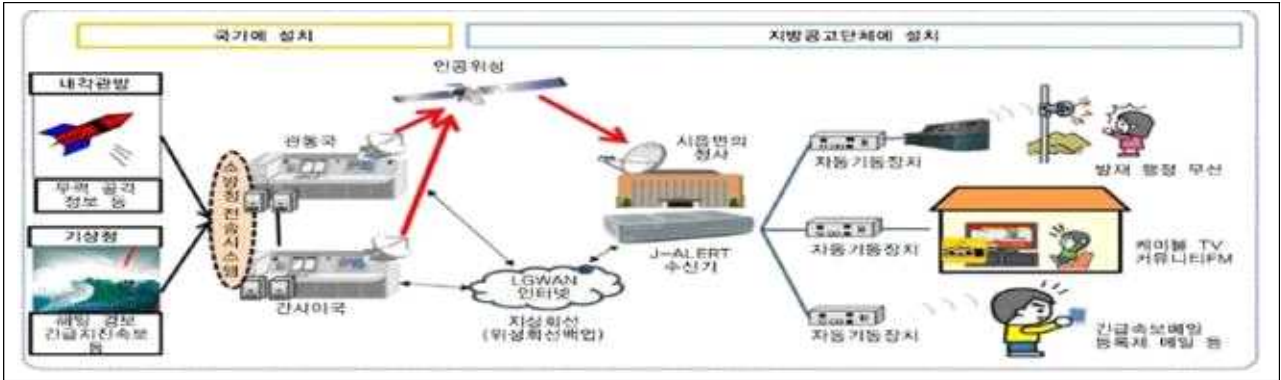
## 1) 미야자키현청 발표내용

○ (일본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 별도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공유 시스템(L-Alert)을 통해 방송국 등  
다양한 매체에 재난정보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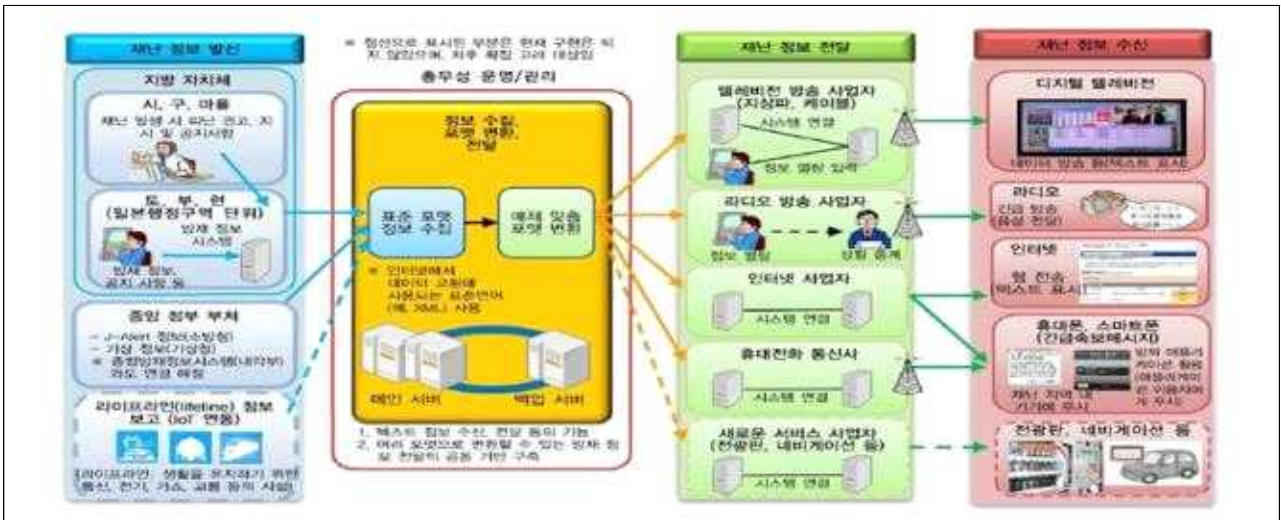
- 재난방송관련 기관은 J-ALERT 및 L-ALERT시스템에 상시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수신받고 있으며, 이 정보를 토대로 방송사 실정에 맞게  
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J-ALERT는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전파하는 목적의 경보이며,  
L-ALERT는 전국 현 및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보공유시스템

< J-ALERT 시스템 구성도 >



< L-ALERT 시스템 구성도 >



○ (미야자키현청 재난대응) 진도를 6단계(7/6장/6약/5장/5약/4)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진·쓰나미의 경우 단계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진도 6이상), 재해경계본부(진도4), 정보연락본부를 설치함.

- 재난 발생 시 종합대책본부는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방재 기관과의 조정 등 재해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 미야자키현 내의 정보 수집은 방재정보공유시스템(도로정보, 피난소정보, 하천정보, 피해정보, 기상정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 일본의 방재 정보는 SIP4D시스템(종합 방재 정보, 기상청 정보, 공공기관 방재 정보, 부처 방재 정보)을 통해 얻을 수 있음. 미야자키현 재난감시실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재해 등에 관련된 정보 수집, 전달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



宮崎県の災害対応概要

機関 (本部)	担当業務	関係機関	本部	担当業務
宮崎県本部 (総務)	① 県庁で設置する以上 の一時退避所(避難所)の確保 ② 県民、ボランティア(県民 大衆ボランティア)及び「日本赤十字 会」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宮崎県本部 (危機管理課)	① 県庁で設置する以上は退避所 の一時退避所(避難所)の確保 ② 県民、ボランティア(県民 大衆ボランティア)及び「日本赤十字 会」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宮崎県本部 (危機管理課)	① 県庁で設置する 以上は退避所(避難所)の確保 ② 県民、ボランティア(県民 大衆ボランティア)及び「日本赤十字 会」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国土省 国土院 国土院防災官事務所



災害監視室 (3F)

● 災害に対する総合的な対応、防災関係機関との調整等に当たる業務は各  
対策本部のコントロールタワー

● 情報収集、分析、対策の立案など、災害に対する総合的な対応や調整  
を実施

【主な業務】

- 災害情報の収集、分析整理、共有、対策立案
- 通信の確保
- マスコミへの情報提供
- 県民への情報発信
- ヘリコプターの運用調整
- 救助物資運送機との連携・調整
- 物資の調達、供給調整

＜みやざき현청 재난대응관련 발표자료＞

## 2) 주요 질의내용

### < 일본 재난방송 대응 관련 >

- 지진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방송사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L-ALERT 국가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주며, 정기적으로 피해상황표를 종합하여 보도기관에 보내고 있음(FAX수신, 홈페이지 게시)
- 재난정보를 방송사에 보낸 경우,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지? 현청에서 직접 기자한테 브리핑하는지?
  - 재해대책본부에 설치된 화면으로 4개 채널 방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큰 재해가 일어나서 재해대책본부(진도 6이상)가 구성 되면 피해 상황을 종합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기자에게 발표하기도 함



○ 현청에서 CCTV로 재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방송사에서 CCTV 화면을 현청에 공유하는지?

- 현청에서 설치한 CCTV로 재난상황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로 보내지는 않음. 또한 각각의 미디어(방송사)가 직접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주민들에게 방송하며, 방송사에서는 피해영상이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현청에서 직접 정보를 보내지 않음.

○ 미야자키현 주민들은 지역재난 정보를 방송, SNS, 인터넷 중 어느 것을 신뢰하는지? 긴급문자 속보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 주민들은 재난정보를 TV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얻으며, 기상청이 날씨와 관련된 정보를 문자로 보내고 있음. 긴급지진속보, 쓰나미경보 등은 통신사를 통해서 긴급문자를 보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재난의 유형에 따라 지자체별로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재난의 유형에 따른 행동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 지진·쓰나미·폭우에 따른 행동 매뉴얼이 있으며, 관계 직원에게 매뉴얼을 배부하고 있음

○ 면담 사진



< 미야자키 현청 · 방동위 면담 >

## □ 개 요

- 일시 : '24. 11. 28.(목) 15:00 ~ 17:00
- 장소 :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이현 방송정책국장, 박성철 재난방송관리팀장, 강창수·손희정·서혜원 주무관
  - (UMK) 나카오 케이이치로 위기관리국장, 사카모토 위기관리과 총무담당, 나카무라 위기관리과 대규모 재해담당, 하타나카 위기관리과 위기관리담당

## □ TV미야자키 방송사 면담내용

## 1) TV미야자키 발표내용

- (TV미야자키 방송사 개요) 1969년에 설립, 1970년 4월 1일 미야자키 현의 민영방송국(UMK, MRT)으로 개국하여 본사는 미야자키시에 있으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노베오카, 도성에 지사를 두고 있음.
- 2023년 3월 기준 총 매출액은 약 67억엔 정도이며 종업원수는 약 200명 정도임. TV미야자키 그룹 회사는 UMK에이전시(주)(광고), 미야자키상사(주)(방송제작), 미야자키 전자기기(주)(방송기기판매), 시스템개발(주)(소프트웨어 개발), UMK 컨트리클럽(골프장) 운영하고 있음.
- TV미야자키는 모든 부서가 한층에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후지텔레비전 주식회사, 닛폰 텔레비전 네트워크 주식회사, TV아사히 주식회사와 cross-network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 TV미야자키는 방송미디어사업, 음악 페스티벌과 전시회 같은 이벤트 사업, 교육사업과 부동산 투자, 회사 앱개발 등 신규사업을 하고 있음.



- o (TV미야자키 재난방송) 정규방송 중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 속보를 따르릉 알람과 함께 화면에 문자를 표시하고 지진 정보(일기예보화면)와 함께 아나운서, 지진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도 스튜디오로 화면이 전환됨.
- L자 화면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 재난관련 방송만 하며, 화면 오른쪽 밑에 쓰나미 상황을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재난 실제 상황을 방송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음. L-ALERT과 UMK 앱을 자동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방재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제공함.
- 기상청, 국토부 등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방송사 실정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재난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 방송 및 시스템 점검 등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매월 실시
  - \* 각 기관의 역할이 자율적이면서 명확하게 구분



## 2) 주요 질답 내용

- 재난방송 자막 문구는 UMK가 작성하는지? L-ALERT 받은 그대로 내보내는지?
  - L-ALERT에서 받은 정보를 UMK에서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음
- 일기예보 방송 출연진들이 보호 헬멧을 쓰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 일본TV는 자기자신을 먼저 보호하라는 원칙이 있어 출연진들의 재난에 대한 보호 목적과 긴급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호 헬멧을 착용
- 호우나 폭우 대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카메라 화면을 다른 방송사들도 공유하는지?
  - 연안 10곳에 기상 관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한 카메라의 정보를 얻고 있으며 타 방송사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 재난 시 즉시방송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인력 등이 있는지?
  - 기상청·후지TV에서 받은 정보를 바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

으로 편집해서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음. 긴급지진 속보는 자동으로 송출되게 되어있으며, 만약 긴급속보가 있을 경우 전직원이 나와서 대응(평소 기술국 직원-밤 2명/낮 3명24시간 근무)

○ 지진, 태풍 등 재난 대비 방송시설의 안전 대응 어떻게 하는지?

- 비상 시 무엇보다도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본사와 송신소에는 72시간 이상 가동 가능한 비상 발전기를 갖추고 있으며, 산악 지역에 46개의 중계소를 갖추어 하루이상 정전이 되어도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진에 대비하여 본사 건물은 지어졌으며, 진도 5이상의 지진에도 흔들림을 흡수할 수 있는 기구들로 구비하고 있음. 또한 쓰나미 발생에 대비하여 본사 주변에는 방수막을 설치하고, 2층 뉴스 서브를 배치하여 1층이 침수되는 경우에도 뉴스를 송출할 수 있도록 설계

○ 재난 시 방송시설이 손상(방송재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 재난에 대비해 기계설비는 이중화하고 있으며, 재난 메뉴얼을 보유하고 재난대비훈련도 수시로 하고 있음. 방송재난에 대비해 시설 관리를 총무성에서 5년마다 확인(세부적인 재난대응보고서 제출)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방송국에서 인력 지원을 해주고 있음

○ 면담 사진



< TV미아자키 · 방통위 면담 >

○ 스튜디오 제작 시설 방문 사진



< TV미아자키 스튜디오 방문 >

###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 시사점 >

##### □ 일본 재난방송 대응 체계

- (재난경보 자동화 시스템) 지진, 태풍 등 긴급상황에서 기상청과 연계된 자동화 시스템 EWBS로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방송으로 방송사간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
  - (재난정보 전달 매체) 지상파 TV, 위성 TV, 라디오, 모바일 앱,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재난 시 9시간 이상 지속적인 재난방송으로 재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림
- (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접근성 확대) 쉬운 단어 사용과 영어 자막을 제공하여 외국인과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색각 이상자를 위한 색상 구분, 디지털 매체에서의 수화 CG 생성 등 재난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시청자가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재난대비 방송 송출 백업 체계) 재난 발생 시 NHK 방송국이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오사카 지역 방송국에서 방송 송출을 이어받는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방송 장비 이중화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유지하며 무인 송신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정성 보장하고 있음
- (국가·지자체·방송사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L-ALERT이라는 국가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가·지자체·방송사 간 실

## 시간 재난정보 공유함

- 또한 지역 방송사는 L-ALERT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송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정보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NHK는 재난 발생 시 24시간 재난 방송 체계를 갖추고 로봇 카메라와 헬리콥터, CCTV 등을 적극 활용해 재난 현장 상황을 신속히 촬영하고 보도함. 또한 정부 하천 감시용 CCTV 등을 활용해 재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명확히 제공함.
- (재난방송 대응 훈련) 지진, 쓰나미, 폭우 등 재난 유형에 따른 행동 매뉴얼을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훈련함.
  -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과 테스트 방송을 통해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을 진행 하며 매년 9월 1일 방재의 날에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 일본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관련

- (수신료 제도) 일본의 수신료는 한국과 같이 공영방송의 사회적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널리 시청자에 공평하게 부담 하도록 하는 특수한 부담금의 형태로, '24년 NHK 사업수입은 6,021억엔(수신료 수입 5,810억엔, 기타 수입 210억엔)으로 수신료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연 지형으로 난시청지역인 경우 위성방송을 활용, 특별계약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단체·가족·사업소 할인 등 공평 부담 이나 위성방송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수신료 할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수신료 감소 대책) '23.10월부터 수신료를 10% 인하하면서 '23년



6,328억 엔(납부율 78.6%)에서 '24년 5,810억 엔(납부율 78%)으로 9.2% 줄었으며,

- 영업 경비를 줄이기 위해 호별 방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업 방식을 추진하여 '18년 773억 엔에서 '24년 544억 엔으로 경비를 줄임
- o (인터넷 필수업무 확대) 수신료 재원 확대에 대한 노력으로 NHK 인터넷 사업을 '필수업무'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24.5월 국회를 통과, 수신료 재원이 확대될 기반을 마련하였음
- 다만, TV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원 확대는 적을 것으로 예상함

#### < 특이사항 >

- o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